

부산 일부 지역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 인지와 조직성과의 관련성

김민영* · 이혜진

동부산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Cor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of cooper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in Busan

Min-Young Kim[‡], Hye-Jin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Dongpusan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quality of dental care services and to improve awareness of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dental clinics, as well as to analyze the association of the collaboration facto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medical institution verified the awareness of the collaboration factor according to the collaboration environment, level, and satisfaction, and provided basic data for efficient dental care services.

From March 5th to April 20th in 2018, five dental hospitals and 30 dental clinics in Busan conducted a survey. In total, 180 surveys were collected and used. The survey identified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collaboration factor through the collaboration environment, collaboration levels, and satisfaction with collabor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by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tribution,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capability. Statistical analysis utilised the SPSS (ver 23.0) program. As a result, dentists outperformed dental hygienists in both their collaboration facto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tribution. Dentist awareness was higher than dental hygienists in the collaboration environment with regard to the collaboration factor. Married, 30~35 years old dentists and dental clinic groups scored higher in collaboration levels, and dentists in the 5~10 years of total career group scored higher in satisfaction of collaboration. Gender and work period were not significant to the collaboration factor. Moreover, male, married dentists, and practitioners who conducted both medical treatment and consultative groups scored higher in management performance. Married dentists and practitioners who conducted both medical treatment and consultative groups scored higher in improvement capability. Age, workplace, and total career period did not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tribution. The collaboration level of dental practitioners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satisfaction of collaboration

Keywords Recognition of cooperati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tribution, dental Hygienist, Dentist

Received on Feb 7, 2019. Revised on Feb 18, 2019. Accepted on Mar 6, 2019.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my7710@hanmail.net)

I. 서론

최근 의료기술의 정보화와 첨단 의료장비의 발달로 인하여 의료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확대와 함께 치과위생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협력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치과 치료의 질적 향상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과 치료에서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의료전문가들에

의한 팀 구성에 있어서 의료 전문 인력간의 업무협력 정도에 따라 의료의 질과 효율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1][2].

치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만족도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와 같은 의료팀들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3], 역할에 따른 업무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의료 서비스는 완전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의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점차 대형화되는 치과의원의 추세와 함께 치과위생사들의 수요도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치과 치료에 대한 목적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교육 역량, 대인관계기술 등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고객 중심의 치료 환경에서 치과위생사의 고객에 대한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조직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구성원들의 직무기회나 역할에 대한 업무협력이 조직성과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 협력은 팀 전체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5].

하지만 효과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인 명확한 업무 규정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치과 치료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보조적 역할을 하던 치과위생사의 과거의 역할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로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을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한 치료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6]. 이에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과위생사들을 치과 치료의 보조인력 수준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 서비스의 치료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7],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성과의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사이의 업무 협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 치료에 대한 환자의 급여가 확대되고 있고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구강예방 및 교육, 대인관계기술, 병원 경영에 대한 파트너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치과위사와 치과위생사의 긴밀한 업무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전문 인력 간의 협력적 접근이 조직성과와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명확한 체계 구분과 업무 협력에 대한 인식 정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실태와 현황 파악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 진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하고 조직의 성과와 기여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환경, 수준, 만족도에 따른 업무 협력 인식도

를 확인하고, 경영성과, 능력제고에 대한 조직성과 기여도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2018년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의 5개의 치과병원, 30개 치과의원에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치과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을 통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치과병원 60부, 치과의원 140부, 총 200부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180부(90.0%)를 회수하여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사회학적인 특성을 확인하였고, 업무협력환경, 업무협력수준, 업무협력만족도를 통한 업무협력 인식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조직성과는 경영성과, 능력제고로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업무협력환경, 업무협력수준, 업무협력만족도, 경영성과, 능력제고에 대한 설문지 문항을 사용하였다[9][10][11]. 설문 내용은 총 23문항으로 6개의 요소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8문항이고, 설문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병원유형, 직종, 주 업무, 총 경력기간, 총 근무기간을 확인하였다. 업무협력인식도와 조직성과 기여도에 대한 설문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값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진행하였다. 업무협력 인식과 업무량 및 업무수행 능력 문항은 “아주 적다” 0점에서 “아주 많다” 10점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SPSS(ver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자료를 얻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진행하였고, 측정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분석(Factor &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Table 1> Configuration of survey

Object	Configuration	No. of survey	Measurement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8	
Collaboration factor	Collaboration environment	3	Likert 5 points
	Collaboration level	1	
	Satisfaction of collaboration	1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tribution	Management performance	2	Likert 5 points
	Improvement of capability	8	
Total No. of survey		23	

였으며 요인부하량이 보통 0.4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0.5이상인 경우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업무협력인식도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의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80명이며, 남성이 22명(12.2%), 여성이 158명(87.8%)이었다<Table 2>. 결혼 유무는 미혼이 126명(70.0%), 기혼이 54명(30.0%)이었고, 연령은 25세 미만 68명(37.8%), 25세 이상 30세 미만 51명(28.3%), 30세 이상 35세 미만 36명(20.0%), 35세 이상 40세 미만 19명(10.6%), 40세 이상 6명(3.3%)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53명(29.4%), 치과위생사는 127명(70.6%)이 본 설문에 참여하였고, 119명(66.1%)는 치과의원에서, 71명(33.9%)는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 구분에서는 진료만 수행하는 대상자가 151명(83.9%), 상담만 진행하는 대상자는 12명(6.7%), 진료와 상담을 같이 수행하는 대상자는 17명(9.4%)로 확인되었다. 치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총 경력은 1년 미만이 18명(10.0%), 1년 이상 3년 미만이 41명(22.8%), 3년 이상 5년 미만이 61명(33.9%),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4명(24.4%), 10년 이상이 16명(8.9%)로 확인되었고,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이 18명(10.0%), 1년 이상 3년 미만이 73명(40.6%), 3년 이상 5년 미만이 62명(34.4%), 5년 이상이 27명(15.0%)로 조사되었다.

2. 업무협력 인식도에 대한 특성

업무협력인식도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설문 결과는 <Table

<Table 2>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rvey

Object	Variables	N	P(%)
Gender	Male	22	12.2
	Female	158	87.8
Marital status	Single	126	70.0
	Married	54	30.0
Age	under 25	68	37.8
	over 25 ~ under30	51	28.3
	over 30 ~ under 35	36	20.0
	over 35 ~ under 40	19	10.6
over 40		6	3.3
Profession	Dentist	53	29.4
	Dental hygienist	127	70.6
Workplace	Clinic	119	66.1
	Hospital	61	33.9
Job	All	17	9.4
	Medical treatment	151	83.9
	Consult	12	6.7
Total career	under 1 year	18	10.0
	over 1 ~ under 3 years	41	22.8
	over 3 ~ under 5 years	61	33.9
	over 5 ~ under 10 years	44	24.4
	over 10 years	16	8.9
Work period in here	under 1 years	18	10.0
	over 1 ~ under 3 years	73	40.6
	over 3 ~ under 5 years	62	34.4
	over 5 years	27	15.0
	Total	180	100.0

3>과 같다. 업무협력인식도 중 업무협력환경에 대해서는 직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5$), 치과위생사에 비해 치과의사의 업무협력환경이 더 좋다고 인식하였다. 업무협력수준에서는 결혼 유무, 연령, 직종, 병원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

였다($P<0.05$) 또는 ($P<0.01$).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업무협력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고, 30대 미만보다 30~35세의 대상자가 업무협력수준이 높다고 답하였다. 업무협력환경과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에 비해 치과의사의 업무협력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에서 업무협력수준이 높다

고 조사되었다. 업무협력만족도에서는 직종과 총 경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에 비해 높은 업무협력만족도를 보였고,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 경력이 5~10년인 대상자들은 5년 미만의 대상자들에 비해 업무협력만족도가 높다고 조사되었다.

<Table 3> Collaboration factors of survey by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bject	Variables	Collaboration environment	Collaboration level	Satisfaction of collaboration
Gender	Male	3.66±0.81	6.81±0.99	6.14±1.85
	Female	3.45±0.71	6.41±1.83	5.57±1.27
	t(p-value)	1.711(0.204)	1.872(0.128)	1.742(0.115)
Marital status	Single	3.44±0.75	5.83±1.84	6.81±1.94
	Married	3.81±0.84	6.42±1.62	7.13±1.84
	t(p-value)	-1.915(0.135)	-1.841(0.027)*	-1.891(0.146)
Age	under 25	3.57±0.71	6.58±1.57 ^a	6.81±1.72
	over 25 ~ under 30	3.61±0.54	6.49±1.89 ^a	6.74±1.77
	over 30 ~ under 35	3.71±0.93	7.14±1.38 ^b	6.59±1.50
	over 35 ~ under 40	3.80±0.77	6.94±1.48 ^{ab}	7.01±1.73
	over 40	3.94±0.83	6.84±1.77 ^{ab}	7.11±1.88
	F(p-value)	2.8(0.103)	1.64(0.041)*	2.044(0.108)
Profession	Dentist	3.83±0.58	7.22±1.46	7.14±1.83
	Dental hygienist	3.49±0.69	6.67±1.59	6.83±1.64
	t(p-value)	2.941(0.014)*	2.726(0.004)**	2.616(0.018)*
Workplace	Clinic	3.59±0.71	7.16±1.67	6.81±1.64
	Hospital	3.44±0.68	6.63±1.93	6.69±1.61
	t(p-value)	0.383(0.816)	0.61(0.041)*	0.209(0.677)
Job	All	3.44±0.83	6.83±1.10	6.84±1.52
	Medical treatment	3.84±0.67	6.60±1.54	6.64±1.44
	Consult	3.66±0.72	6.84±1.46	6.58±1.18
	F(p-value)	1.536(0.204)	0.905(0.337)	1.541(0.345)
Total career	under 1 year	3.44±0.72	7.14±1.62	6.12±1.56 ^a
	over 1 ~ under 3 years	3.61±0.88	6.84±1.73	6.36±1.78 ^a
	over 3 ~ under 5 years	3.45±0.92	6.59±1.99	6.27±1.49 ^a
	over 5 ~ under 10 years	3.50±0.46	6.72±1.72	6.84±1.45 ^b
	over 10 years	3.66±0.82	6.72±1.78	6.67±1.58 ^{ab}
F(p-value)	1.871(0.189)	1.912(0.758)	1.945(0.036)*	
Work period in here	under 1 years	3.53±0.79	6.77±1.54	6.62±1.63
	over 1 ~ under 3 years	3.72±0.71	6.82±1.61	6.53±1.61
	over 3 ~ under 5 years	3.69±0.45	6.61±1.69	6.35±1.46
	over 5 years	3.63±0.63	6.81±1.75	6.53±1.84
	F(p-value)	1.453(0.271)	1.114(0.826)	0.726(0.884)

All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p<0.05$, **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and one way ANOVA

^{a,b}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by Duncan method comparison at 0.05 significance level

3. 조직성과 기여도에 대한 특성

조직성과 기여도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설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조직성과 기여도 중 경영성과 인식도는 성별, 결혼

<Table 4>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tribution by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bject	Variables	Management performance	Improvement of capability
Gender	Male	3.58±0.88	3.49±0.81
	Female	3.31±0.71	3.30±0.76
	t(p-value)	1.862(0.017)*	2.015(0.141)
Marital status	Single	3.29±0.81	3.38±0.69
	Married	3.73±0.67	3.64±0.51
	t(p-value)	-3.244(0.004)**	-3.014(0.011)*
Age	under 25	3.41±0.71	3.48±0.64
	over 25 ~ under 30	3.61±0.61	3.39±0.79
	over 30 ~ under 35	3.55±0.78	3.62±0.59
	over 35 ~ under 40	3.69±0.81	3.50±0.67
	over 40	3.74±0.84	3.42±0.87
	F(p-value)	2.442(0.108)	3.275(0.244)
Profession	Dentist	3.70±0.58	3.63±0.51
	Dental hygienist	3.46±0.71	3.48±0.69
	t(p-value)	3.145(0.008)**	1.948(0.011)*
Workplace	Clinic	3.51±0.87	3.55±0.61
	Hospital	3.44±0.78	3.48±0.66
	t(p-value)	1.377(0.228)	0.994(0.341)
Job	All	3.61±0.67 ^b	3.69±0.71 ^b
	Medical treatment	3.40±0.71 ^a	3.44±0.61 ^a
	Consult	3.48±0.74 ^a	3.48±0.66 ^a
	F(p-value)	6.813(0.026)*	5.249(0.004)**
Total career	under 1 year	3.61±0.78	3.50±0.61
	over 1 ~ under 3 years	3.53±0.64	3.44±0.51
	over 3 ~ under 5 years	3.48±0.81	3.55±0.59
	over 5 ~ under 10 years	3.44±0.70	3.47±0.61
	over 10 years	3.56±0.69	3.62±0.64
F(p-value)	1.844(0.141)	2.440(0.107)	
Work period in here	under 1 years	3.38±0.65 ^a	3.44±0.51
	over 1 ~ under 3 years	3.41±0.71 ^a	3.38±0.61
	over 3 ~ under 5 years	3.61±0.55 ^b	3.34±0.63
	over 5 years	3.69±0.63 ^b	3.39±0.55
	F(p-value)	3.642(0.011)*	1.712(0.645)

All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p<.05, **p<.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and one way ANOVA

^{a,b}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by Duncan method comparison at 0.05 significance level

유무, 직종, 업무, 근무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는 (P<0.01).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은 경영성과인식도를 보였고,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업무협력인식도와 마찬가지로 직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치과위생사에 비해 치과 의사의 경영성과인식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업무에서는 진료나 상담만을 하는 치과 의료인보다 진료와 상담을 같이 수행하는 의료인의 경영성과인식도가 높았으며,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이 3년 미만의 의료인보다 더 높은 경영성과인식도를 보였다.

조직성과 기여도 중 능력제고에서는 결혼 유무, 직종, 업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는 (P<0.01). 경영성과인식도와 마찬가지로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치과위생사에 비해 치과 의사에서 높은 능력제고가 확인되었다. 업무에서는 진료나 상담만을 하는 치과 의료인보다 진료와 상담을 같이 수행하는 의료인의 능력제고가 높게 조사되었다.

4. 업무협력인식도와 조직성과 기여도의 상관관계 분석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의 업무협력인식도와 조직성과 기여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든 변수에서 p<0.01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였고, 업무협력만족도와 업무협력수준의 상관관계가 0.899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는 업무협력수준과 업무협력환경이었고(r=0.830),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경영성과인식도와 업무협력환경에서 확인되었다(r=0.364).

IV. 고찰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서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도와 조직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 치과 의료는 기존의 치과 치료에 대한 목적뿐만 아니라 구강 질환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치과 의사의 보조적 역할을 하던 치과 위생사의 역할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하지만 보조 인력이라는 치과 위생사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과 의사와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object

Object	Collaboration environment	Collaboration level	Satisfaction of collaboration	Management performance	Improvement of capability
Collaboration level	0.830**	-	-	-	-
Satisfaction of collaboration	0.714**	0.899**	-	-	-
Management performance	0.364**	0.402**	0.394**	-	-
Improvement of capability	0.497**	0.483**	0.424**	0.497**	-

*p<0.05, **p<0.01

치과위생사와의 의료 협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부족은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협력적 관계보다 원장과 직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식의 개선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치과위생사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 의료 환경의 경영에 대한 참여도와 인식을 높임으로써 환자 중심적인 치료에 관심을 높이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경영에 관련되는 조직성과와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도가 치과위생사에 비해 치과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도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상담과 진료를 같이 수행하는 의료인의 조직성과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치과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여가 의료인의 참여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조직성과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을 통해 치과 의료인의 업무협력과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우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치과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치과 의료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위생사의 참여가 높은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업무협력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 확립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직성과를 위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긴밀한 업무협력은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인 각각의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지만 업무협력에 대한 환경과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치과 의료 시스템의 개발과 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고 이를 통한 치과위생사의 전문보건의력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력과 조직성과에 대한 기여도 모두에서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2. 업무협력인지도 중 업무협력환경에서 치과위생사보다 치과의사의 인식도가 높았다. 업무협력수준에서 기혼자, 30~35세, 치과의사,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인식이 높았으며, 업무협력만족도에서 치과의사, 총 경력이 5~10년의 의료인이 더 높았다.
3. 경영성과인식도에서 남성, 기혼자, 치과의사, 진료와 상담을 모두 수행하는 의료인이 더 높게 나타났고, 능력제고에서 기혼자, 치과의사, 진료와 상담을 모두 수행하는 의료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치과 의료인의 업무협력수준은 업무협력만족도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REFERENCES

1. Zwarenstein M, Bryant W, Reeves S: In-servic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mproves inpatient care and patient satisfaction.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17(4):401-402, 2003.
2. Kim JL: Perception of doctor and nurse on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in hospital ward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09.
3. Lee S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dental hygienists' job stres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5(1):151-163, 1998.
4. Uldricks JM, Hicks MJ, Langhout KJ, Beck FM: Denta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dental hygiene Profession. *Journal of dental education* 59(2):147-151, 1995.

5. Kim DH: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interdisciplinary team collaboration in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6.
6. Chang CW, Park SA: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hospital's organizational pattern for nursi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perceived by nurses and their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3(3):397-416, 1993.
7. Lee CW: Professionalism of dentists and their recognition on the changing occupational environm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1997.
8. Uldricks JM, Hicks MJ, Whitacre HL, Anderson J, Moeschberger ML: Dental hygienists's utilization of periodontal assessment skills and perceived collaboration with dentist-employer. Journal of dental hygiene 67(1):22-29, 1993.
9. Choi WY: Dentist and dental hygienist perception of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09.
10. Yoo SY: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performance of healthcare organ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2004.